

“고용·주거 개선, 저출산 해결” 한 목소리...군공항 이전엔 이견

전남도지사 후보 5명 지역현안 입장 들어보니

혁신공항 건설 대체로 찬성 AI·살충제 계란 파동 대비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 주장

전남도의 가장 큰 현안은 인구 감소 문제다. 지난해 190만명이 붕괴됐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전남도의 대책은 마땅치 않다. 각 정당의 전남지사 후보들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다. 또 찬반 여론이 맞물린 혁신공항 건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교통정책과 관광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핵심 과제다. 해마다 되풀이하는 조류인플루엔자와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대책 마련도 절박하다.

◇인구 감소 심각, 해법=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보육과 교육, 환경과 안전 등이 융합된 인구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박매호 후보는 “일지리를 확실하게 늘리는 것이 인구 감소 해법”이라며 “제2, 제3의 청년벤처창업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는 “전남은 취업과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20대가 많고, 여수산단·대불산단이 불황을 겪으면서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법으로 보육·교육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들었다.

정의당 노형태 후보는 “일자리와 소득, 교육과 보육,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중당 이성수 후보는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 제공, 최저임금 아닌 생활임금 보장, 농민수당 240만원 도입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혁신공항 건설 찬반 팽팽=혁신공항 건설에 대해 대체로 찬성했다.

김영록 후보는 “도서지역 주민 접근성 향상, 관광객 유치 등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계획기간내 완공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박매호 후보는 “전남발전 전략에 다도해 해상복합관광지구 활성화가 들어있다”며 “2020년 개항해야 다도해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영삼 후보도 관광객 유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들어 건설에 동의했다.

다만, 이성수 후보는 “주민 편의를 위해 혁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되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노형태 후보는 “혁신공항이 오랜기간 탄력받지 못한 것은 경제성과 환경과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며 “공항 건설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



24일 6·13 지방선거 전남지사 예비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사진 왼쪽부터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박매호 바른미래당, 민영삼 민주평화당, 노형태 정의당, 이성수 민중당 후보.



의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어떻게=민영삼 후보는 “광주공항 및 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안공항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며 “조기 이전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매호 후보도 “공항 이전·통합이 되지 않으면 광주·전남 지역발전은 뒤처지게 된다”며 “공동TF를 구성해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반면, 김영록 후보는 “민간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간 협의와 이전 예정지역 주민 의견이 중요한 만큼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노형태 후보와 이성수 후보는 “광주 민간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하되, 군공항은 평화로 가는 새시대 흐름에 맞춰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살충제 계란 파동 해마다 되풀이 하는데=농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김영록 후보는 “지난 8년간 구제역·고병원성 AI 등으로 발생한 직접 피해액만 4조원에 달한다”며 “철저한 역학조사와 백신 일제 접종, 백신비축량 확대, 현장 소독 강화 등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매호 후보는 “대한민국 친환경 농도 제1호 전남이 대표공약”이라며 “먹거리는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현해 가축질병을 최소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민영삼 후보와 이성수 후보는 “밀식 양계로는 만성적인 AI를 극복할 수 없다”며 “동물복지형 자연방목 산란계 축산정책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노동가치 높이고 청년 일자리·무상교육 확대

정의당·민중당 지방선거 광주·전남 공약 뭐가 있나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정의당과 민중당은 진보정당에 걸맞게 노동과 청년일자리 확충, 무상교육 확대 등 사회 저소득층과 약자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 정의당의 제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 수록된 지역 공약은 대부분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성평등과 중소기업·농민 보호에 맞춰져 있다.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청년도시 광주’를 강조하며 청년부시장제를 도입하고 광주형 청년사회상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 조직률 20% 달성, 노동재난 건립, 노동국 신설 등도 정의당의 주요 노동 공약이다.

이 밖에도 ▲성평등위원회 권한 강화

청년부시장제 도입 월 10만원 농민 기본소득 노조 가입률 20% 달성

▲소수자 인권 실현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 취소 ▲지역화폐 발행 ▲농민 기본소득 도입 ▲도시공원 단계적 매입 ▲습지 보존·미세먼지 대책 수립 등의 공약도 내놨다. 정의당은 또 전남지역의 인구절벽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월 10만원의 농민기본소득 실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 ▲읍

면동별 마을학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노동자, 농민, 청년,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자영업, 중소기업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공동 부시장제를 도입하는 등의 이색 지역공약을 내놓았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공동 부시장제 도입, 광주적폐(우리동네 적폐) 청산,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 등의 3대 시장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가입률을 10%에서 50%로 확대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농업예산 1%를 2%로 높이고 농민 수당 240만원 신설 ▲고등학교 무상교육, 청소년 노동(알바) 보호 전담 감독기구 설치 ▲자영업 종합지원 센터 설치 ▲모든 장애인 최저임금·연금 보장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또 ▲기

초연금 30만원 ▲엄마와 아이를 위한 자치구별 마더 센터 설립 ▲시립종합병원·장례식장 등 설립 ▲사회 서비스 공단 설립 ▲아시아 문화전당을 5·18문화전당으로 등의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민중당 전남도당도 해남군 산이면 일대에 통일농업특구를 만드는 등의 지역공약을 내놨다. 민중당은 산이면의 통일농업특구를 시작으로 통일공업특구와 통일농업특구를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시 ▲농민수당 240만원(월 20만원) 지급 ▲공무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물, 전기, 가스 등 기본사용량 무상공급 등도 주요 전남지역 공약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평화당 광주시장 후보 안 내기로 “구청장·지방의원 등 당선 가능 지역 지원 집중”

민주평화당은 24일 김종배 광주시장 후보가 불출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광주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고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광주시장 후보는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당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당선 가능 지역의 후보를 지원하자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불출마를 선언한 김 후보에 대해 “안타깝지만 본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구청장과 지방의회에 집중해 더불어민주당과 대결 구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호남이 핵심 지지기반이었던 평화당이 광주에서 아예 시장 후보를 못

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광주시장은 민주당에 주더라도 구청장과 지방의원은 민주평화당에 달라는 식으로 광주시민에게 호소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부도 직전에 처가 담보로 대출받았다가 부도가 나면 처가도 망한다”고 비유하며 무리한 공천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2018년 무안공항직항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짜짜우~~~

일본기타큐슈,오사카,다낭,방콕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13일부터 주 3회 출발 / 화,금,일 정기편 확정

운항스케줄 오후(화,금,일) 무안-기타큐슈 18:00-19:10 / 기타큐슈-무안 19:40-20:50

기타큐슈 (일출발) 한정 특가

2박3일 호텔1박 / 고급 온천별장1박 399,000 원~
 2박3일 호텔1박 / 온천료관1박 499,000 원~
 3박4일 호텔2박 / 고급 온천별장1박 599,000 원~

아이마치폭격 699,000 원~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취항 !!

7/18부터 ~ 8/21까지 총 19회

7월 18,21,24,25,27,28,30,31 8월 2,3,5,6,8,9,11,12,14,17

[동격 준특급 + 특급] 1,290,000~
 [고급격 특급] 1,450,000~
 [골프 특급] 1,790,000~

무안 → 블라디/하바를 전세기 취항 !!

7/11부터 ~ 8/16 까지 총 13회

[항공 3성급] 1,090,000~
 [실속 5성+3성급] 1,190,000~
 [특격 5성급] 1,350,000~

국선수가 요건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무안 → 다낭 직항전세기 3박4일(화) / 3박5일(금)

2018. 5. 18. 이후 (매주 화, 금 출발) 짜짜우~~~

VN 베트남국영항공사 (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서비스

A-321-200 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기내담요,베개 비디오상영

화출발	무안-다낭 08:05-10:40 / 다낭-무안 14:40-20:30
금출발	무안-다낭 21:35-00:10 / 다낭-무안 01:05-06:55

[골드] 다낭,후에,호이안 4일 699,000~
 [골드] 다낭,후에,호이안 5일 769,000~
 [프리미엄] 다낭,후에,호이안 4일 799,000~
 [프리미엄] 다낭,후에,호이안 5일 969,000~

※다낭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남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광주출,도착 ALL 포함 4,600,000원

광주 - 제주도

2박3일 (주중) 299,000원~ / 2박3일 (주말) 37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임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전세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고품조관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여행보험: 1억원, 국내보험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중 지역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 참가 요건 :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인당 항공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없애. ※ 예약시 계약서 (특수 규정) 및 설명회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김바람(항공), 기사/기타(드), 통신회, 선택사항, 각종 비보험(별도)